



2006. 9. 15.

싱가포르의 식품 시장 동향

내용문의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

(02-2194-7453, shinilgi@khidi.or.kr)

□ 싱가포르의 식품 시장개요

- 싱가포르에는 현재 300여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가 현존, 2003년 식품 및 음료의 국내외 교역이 S\$ 106억 규모를 달성(2003년 총 교역액 S\$5천억 가량), 수입이 62.6%, 수출이 37.4%를 차지
- 주요 수출 냉동식품으로는 로띠쁘라따(roti prata), 스프링롤, 피쉬볼(어묵) 등이 있고, 이 외에도 각종 소스,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, 맥주 등이 있음
- 싱가포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여, 외식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, 대중적인 음식이 주로 판매되는 호커센터(Hawker Centre)에서 S\$3~5이면 1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며, 1 메뉴당 S\$30을 넘어가는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찾는 부유한 고객층과, 평균 S\$15~25 정도 하는 한국 음식점에도 현지인들의 방문이 꾸준한 상황임
-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, 싱가포르 총 가계 지출 중 음식비용이 1973년에는 45.2%에서 2003년에는 21.3%로 현격히 줄어들었, 그 만큼 식사가격이 현 물가 수준에 비해 저렴하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함
- 현지 바이어들은 소량의 다양한 제품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분하며, 현지 바이어 접촉 결과,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의 식품 제조업체가 다양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

□ 싱가포르의 식품 시장동향

○ 수요동향

- 라면의 경우, 싱가포르 현지시장에는 이미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하고 있고,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 채식주의자를 위한 라면, 버섯맛, 해물맛, 닭고기, 커리, 태국의 툼남(tomyam), 간장 맛 등 종류가 매우 다양 또한, 일본과 한국산의 다소 고가의 라면이 시장에 등장해서 판매되고 있음
- 커피의 경우, 아침식사로 커피를 즐기는 싱가포르인이 많아지면서, 싱가포르에 커피를 판매하는 소매점 등이 급증한 추세 편의점 등에서 캔, 팩, 병 등에 담겨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브랜드로는 Nescafe, Pokka, I-cafe, Georgia 등이 있으며, 현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커피크리머로는 Nestle가 있으며, 현지에서 제조되고 있는 Super, Owl 등의 브랜드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

상황임

- 김치의 경우, 싱가포르에서 김치는 몇몇 슈퍼마켓에서만 판매되고 있고, 현지 시장에서 수요가 그다지 높은 품목은 아니며, 현재 드라마 ‘대장금’이 방영중 이나 홍콩과 같은 큰 인기는 못 얻고 있는 상황이며, 김치에 열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현지에 삼발(sambal), 칠리 등 매운맛을 내는 소스 등이 이미 있는 관계로, 김치의 매운맛에 현혹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
- 한국의 과자는 일본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파악되는데, 현재 일본산 과자는 과자시장의 5% 미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, 그 만큼 현지에서 과자는 이미 다양한 브랜드 등이 진출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
- 싱가포르에서 인기가 높은 음료 품목군으로는 과일주스가 있는데, 주로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뉴질랜드, 남아프리카에서 들여오고 있는 수입품이 주종으로, 캔, 유리병, 플라스틱 병 등 다양한 포장용기에 담겨져 판매되고 있고,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 단골 품목임

○ 생산동향

- 싱가포르에는 라면, 커피프리머, 과자류, 주스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음
 - 싱가포르에 라면 제조사로는 Nissin Foods Co. Ltd가 있음
 - 커피프리머 제조사로는 Super Coffeemix Manufacturing Pte Ltd가 있고, Super라는 브랜드를 생산
 - 과자류 현지 제조사로는 Shao Tong Chuan Vegetarian Foods Mfg Pte Ltd, 마른 김 종류를 주로 생산
 - 현지에서 생산되는 주스는 JJ Drinks Manufacturing Pte Ltd와 Pokka Corporation Ltd가 유명한 메이커
- 단, 싱가포르에서는 김치는 생산하고 있지 않고, 전량 수입

○ 유통구조

- 수입식품은 우선 디스트리뷰터 또는 도매상들을 통해 슈퍼마켓, 편의점 등지로 판매
 - 식품의 수입, 판매를 위해서는 디스트리뷰터가 싱가포르 농산품/동물청

(AVA/ Agri-food and Veterinary Authority)으로부터 허가를 사전에 획득
해야 함

○ 경쟁품목

- 라면의 소매가는 봉지 5개짜리가 S\$1.00~3.20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
- 커피크리머의 소매가는 450 그램에 S\$1.50부터 시작되고, 역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대량 수입됨
- 싱가포르에서 팔리고 있는 김치의 가격은 S\$1.00에서 S\$10으로 매우 다양한데, 공급은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
 - 현지에서 'ar-cha'라는 김치의 일종을 같은 카타고리로 볼 수도 있음
- 음료수의 소매가격은 S\$1.00 미만부터이며, 한국의 제조사들은 단 음료를 꺼려하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음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